

# 朴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호남 출신 2명뿐

23명 중 11명 영남… 민주당 강기정 의원 “지역편중 인사 심각”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장의 영남 쓸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 정부 들어 임명된 23명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장 중 무려 11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이 대구·경북 출신이어서 특정 지역 인사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호남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공기업 기관장 중에서는 9명 중 2명이 영남 출신으로 분석됐다.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공기업 기관장은 경제와 재무 각 2명씩이었으며, 강원과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각 1명씩이었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지역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준정부기관장의 영남 출신 비중은

더욱 높았다. 새정부 들어 임명된 14명의 준정부기관장 중 9명이 영남 출신이었으며, 이 중 7명이 대구와 경북 출신이었다.

이어 서울과 부산·경남 출신이 각 2명씩이었으며, 강원과 충북, 광주·전남 지역은 각 1명씩에 불과했다.

이 중 지난 2일 임기를 시작한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광주 출신이다. 강기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

## ■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장 출신 지역 (단위: 명)

	서울	경기	강원	충남/대전	충북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	제주	계
공기업	0	2	1	0	1	1	0	1	1	2	9
준정부기관	2	0	1	0	1	0	1	7	2	0	14

(자료: 강기정 의원실)

가 측근 인사, 호남 지역 출신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측근 인사, 영남 지역 편중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

국가스공사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지역 변전소 9곳

전력 용량 미달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불가능”

김동철의원 주장

나주와 영암 등 변전소 9곳이 전력 용량 미달로 신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6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계통연계가 불가한 변전소가 전남이 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산업부가 지난 8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태양광발전의 최적지인 나주 등 전남 지역 9곳에서는 변전소 연계용량 포화로 인해 신규 소규모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최대 송전용량이 20MW 이하인 경우 22.9kV 전압으로 변전소에 계통연계를 해야 하는데 변전소당 신재생에너지 연계 용량을 40MW까지 제한하다 보니 용량이 포화된 변전소가 생겨난 것”이라며 “전남은 신재생에너지지를 이용한 발전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변전소 용량 때문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는 만큼 변전소 용량부터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치사랑 나눔행사

지난 5일 광주중외공원에서 개막한 제20회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김치사랑 나눔행사’에 참여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성훈 김치축제 위원장, 흥보대사인 배우 이종원씨 등이 직접 담근 김치를 드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hoi@kwangju.co.kr

## ‘남도김치, 세계로 날다’

###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 중외공원 일대서 9일까지 열려

올해로 성년인 20회째를 맞이한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가 지난 5일 광주 중외공원에서 개막하고,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남도 김치, 세계로 날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축제는 전시, 경연, 공연, 체험행사 등 54가지 프로그램들이 9일까지 중외공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남도 김치, 세계로 날다’에서는 지역의 명품 김치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올해 처음 운영하는 ‘김치 명인 식당’에서는 그동안 축제에서 배출된 명인들이 매일 한 명 참여해 전통의 맛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김치오감체험관’에서는 다양한 김치와 김치요리를 직접 만들고 맛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또, 시민이 참여해 무대를 직접 꾸미는 ‘자치구 시민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기간 내내 열리며, GPN 광주 영어방송 외국인 가요제, 팝 페스티벌, 아트서커스, 아시아 포크 음악회, 평양 민속예술단 등 공연도 이어진다.

시는 20회를 맞은 김치축제를 계

기로 삼아 김치산업 육성 5개년 계획

(2013~2017년)을 수립·추진하고, 김치 공동브랜드 개발 및 명품 김치 브랜드화, 김치타운 활성화, 김치산업 글로벌화, 유통·소비 마케팅 확대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관선 광주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94년 비엔날레와 함께 김치축제를 기획해 만들었는데 벌써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김치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했다”면서 “김치축제를 발판삼아 광주김치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김치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개방형 감사관

#### 박옥창씨 임용



광주시는 “개방형 감사관(부이사관)에 박옥창(57) 전 감사원 감사관을 지난 4일자로 임용했다”고 6일 밝혔다.

박 감사관은 신안출신으로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감사직 7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5년 11개월간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2010년부터 3년여간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감사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높았다. 이 같은 답변율은 미국(33%)의 경우 7위로 상위권이었으나, 일본(15%)은 19위로 뒤쳐졌다.

교사의 위상은 다른 직업군과 비교한 질문에서 ‘의사’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다.

전체 국가에서 가장 많은 답변은 ‘사회복지사’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한다’는 응답률은 한국이 불과 11%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75%)이 압도적으로 선두였고 이어 터키(52%), 싱가포르(47%) 순이었다.

한국에서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4점으로 평균 점수(5.5점)를 밟들며 19위에 그쳤다.

이 분야에서는 핀란드(7.7점)가 가장 높고 싱가포르·스위스·일본(6.7점)도 우수했다.

한국은 또 교사의 학업 수행에 대한 신뢰도 역시 평균(6.3점)이 이하인 5.4점으로 이스라엘(5.2점), 일본(5.3점)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19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한국은 교육시스템과 교사에 대한 신뢰가 낮지만,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기를 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국 교사 위상 OECD국중 4위

### 중국 1위… 학생들 존경심은 ‘꼴찌’

한국에서 교사의 위상이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 재단이 발표한 ‘교사 위상 지수’(Teacher Status Index 2013)에 따르면 한국은 62점으로 중국(100점), 그리스(73.7점), 터키(68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전체 국가에서 가장 많은 답변은 ‘사회복지사’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한다’는 응답률은 한국이 불과 11%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75%)이 압도적으로 선두였고 이어 터키(52%), 싱가포르(47%) 순이었다.

한국에서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4점으로 평균 점수(5.5점)를 밟들며 19위에 그쳤다.

이 분야에서는 핀란드(7.7점)가 가장 높고 싱가포르·스위스·일본(6.7점)도 우수했다.

한국은 또 교사의 학업 수행에 대한 신뢰도 역시 평균(6.3점)이 이하인 5.4점으로 이스라엘(5.2점), 일본(5.3점)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19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한국은 교육시스템과 교사에 대한 신뢰가 낮지만,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기를 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朴대통령, 인니·브루나이 순방차 출국

### APEC회의 등 참석

서 ‘다자무역체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에 대해 선두발제와 토의를 벌인다.

또 APEC 정상회의 폐막 후 9일 브루나이로 이동,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취임 후 네 번째인 이번 해외순방은 6박8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7~8일 제2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참석자 인도네시아 발리, 9~10일 제16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브루나이를 각각 방문, 다자외교를 펼친다.

이어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6일 최고경영자회의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데 이어 7일에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혁신도시·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려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전국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 선암동 전원주택용지분양

###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각 필지 면적 평당 130만원

현 토목공사 90% 진행 중

70% 분양완료!

####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는길

선운자구

영광

호남대학교

어등산 브로드

010-5166-0013

010-2475-0933

## 금당공인중개사